

중국 빅10, 한국산 부품 조달 확대

KOTRA, 5월말 자동차·IT 부품 상담회 참가 ... 경쟁력 높이 평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기업들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품조달을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중국지역본부는 5월 말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자동차·IT 부품 수출 상담행사 참가를 위해 중국 통신 분야 최초로 외국자본이 투입된 알카텔 상하이벨, 유럽 자동차부품 공급기업 2위인 컨티넨탈그룹, 중국 컬러TV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창홍(長虹)전자 등 중국에서 분야별로 선두를 달리는 빅10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라고 5월26일 발표했다.

창홍전자는 아웃소싱 구매액이 7억5000만달러로 3분의 1에 달하는 2억5000만달러 상당을 한국에서 구매하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알카텔 상하이벨, 컨티넨탈 등이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방한에서 구매조달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31일부터 6월2일 서울에서는 <아시아 유력 전자·IT 초청상담회>, 6월 8-9일 <혁신 클러스터 유력바이어 초청상담회>, 6월14일 <차이나 빅10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 상담행사가 개최된다.

황민하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기업을 비롯해 대형 IT·자동차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하 본부장은 “부품소재는 대중국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환율절상, 중국산 중간재의 맹추격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중국의 안정된 내수·수출기반, 글로벌기업의 구매정책 변화 등을 감안할 때 2자리대 확대기조는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9>